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및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이현정 · 김주덕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향장미용전공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피부미용 산업의 눈부신 발달은 피부미용이라는 직업인의 가치와 전문적 위상이 높아지게 되며 인정받게 되었다.1) 국민소득 증가로 인해 외모를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피부미용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기존 일회성 소비로 그쳤던 “피부관리”가 보편적 문화로 인식 전환되고 인터넷의 발달로 잠재적 소비자의 미적 구매 욕구가 증가 하고 있다.2) 피부미용업무는 공중위생분야로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분야로 향후 국가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되는 차원에서 수요가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

과거에는 피부미용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미용고등학교, 전문대 또는 4년제 미용과를 졸업한 후, 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미용사(일반)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 후,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를 할 수 있었다.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명시된 이·미용서비스에 의하면 미용은 헤어미용, 피부미용, 네일미용, 메이크업의 4가지 직종단위로 분류된다.

하지만 2008년 1월1일 전에는 피부관리실, 네일아트관리실, 메이크업샵, 을 운영하려면 전공과 무관한 미용사(일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후 면허증으로 교부 받아야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미용고등학교나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피부미용관련학과로 졸업 후 면허증을 가지고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여야 했다.

헤어중심의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지 피부관리실을 운영 할 수 있었던 불합리한 자격제도를 오랜 기간 노력한 결과, 2007년 4월 5일 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미용사(피부)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지금까지 미용사(일반)과 미용사(피부)로 세분화하여 분리 되었다.4)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도 2008년 10월부터 미용사(일반) 과 미용사(피부)로 분리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시행하였고, 피부미용사들은 보다 전문적인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 10월 기능사 5회 때 제 1회 시험 필기시

험 응시생이 무려 6만6,543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관심 속에 시작되었고. 시행 4년 동안 25만 명이 응시하여 48.9% 합격률을 보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피부미용국가기술자격 시험이 지금까지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주관의 정시시험에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으로 위탁되면서 상시검정 방식으로 전환되어 그동안 연간 4차례 실시되던 피부미용국가기술자격시험 필기시험이 응시기회를 확대하여 최대24회로 늘어나고 또한 실기시험도 연간 16회로 늘어나서 더 많은 자격증 소지자들이 앞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5)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 시험이 정기시험에서 상시시험으로 전환되면서 자격증 취득자들이 늘어나겠지만 피부미용사들의 자질문제는 현시점에서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피부미용사 자격시험 기준을 보면 미국은 600시간, 독일은 1,500시간, 영국 1,500시간, 프랑스 2400시간, 일본 1,2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의 교육훈련과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다만 시험으로 합격, 불합격 판정으로 결정지으며 이로 인해 현장실무에서 외국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미용사(일반)국가기술자격증에 관한 논문들이 대부분이었으나 2008년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이 분리 된 후 선행논문들로는, 류연옥(2009)의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광주, 전남중심으로 현재 피부미용업의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와 현재 피부미용업에 종사하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한자와 미 취득자를 대상으로, 배윤희(2011)의 피부미용의 국가자격제도 및 업무실태 개선방안에 관한연구는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피부미용업 종사자 및 1회 이상 응시해본 경험이 있는 종사자로 연구지역과 대상이 제한적 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이 미용사(일반)과 미용사(피부)로 나누어진 상황에서 수도권과 충청지역 이라는 특정지역을 정하여 자격증 취득과정과 자격증의 교육이수시간 강화 및 피부미용사들의 사회적 인식과 활용실태를 분석하였고, 미용사(피부)자격증 취득실태와 환경, 자격증 취득 후 활용실태에 관해 조사하였으며, 향후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정이 현실적으로 피부미용업무에 맞게 시행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피부미용 산업의 향후 피부미용인들에게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피부미용 국가자격증의 취득실태
- 2)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피부미용 국가자격증의 취득환경
- 3)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피부미용 국가자격증의 활용실태
- 4)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피부미용관리의 법적인 규제 현황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피부미용업계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여성을 표집 설문조사하였으며, 설문내용은 연구 취지에 맞게 연구자가 작성자에게 직접 설명한 후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3월5일부터 3월31일 약 26일 간에 걸쳐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에 총 400부를 배부하고 불성실한 설문지 52부를 제외한 34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미용사(피부)자격증 취득 및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 논문들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참조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한 설문문항과 본 연구자가 개발한 측정도구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피부미용사들의 피부미용 국가자격증 취득실태와 자격증 취득 환경, 국가자격증 활용실태, 그리고 피부미용관리의 법적인 규제사항에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 검증과 빈도분석, t-test(검증), 그리고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미용사들이 종사하는 업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일반 피부관리실에 종사하는 피부미용사가 54.9%로 가장 많았으며,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으로는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을 피부미용사가 6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8년 이전 미용사(일반) 국가기술자격증 26.1%, 로 나타났다. 피부미용사들이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취득한 목적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피부관리실 창업을 위해 취득한 피부미용사가 43.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취업 36.3%,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교육을 배운 장소로는 피부미용학원에서 57.8%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이수기간 필요성에 대해 피부미용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피부미용사가 81.0%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미용사(피부) 자격증 교육이수시간의 합리적 범제화 시간에 대해 교육이수시간은 300~600시간미만이 합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피부미용사가 47.9%로 가장 많았으며, 미용사(피부) 자격증 필기과목 중 추가되어야 할 과목에 대해 피부미용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미용사(피부) 자격증 필기과목 중 서비스 및 C/S교육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피

부미용사가 2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메디컬 스킨케어 18.4%, 대체의학 15.8%, 미용경영학 11.8%, 미용심리학 8.9% 를 차지하였다. 실기내용 중 추가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피부미용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미용사(피부) 자격증 실기내용 중 기기관리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피부미용사가 2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로마테라피 19.3%, 등 관리와 기타 15.2%, 경락 14.4%, 목 및 어깨 관리 12.4% 순으로 나타났다.

3. 미용사(피부) 자격증 실기시험에서 감독위원들의 공정한 감독 정도에 피부미용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93으로, 피부미용사들은 미용사(피부) 자격증 실기시험에서 감독위원들의 감독이 그다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주관적 심사기준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피부미용사가 4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감점 요인의 불분명함 25.4%, 감독관 수가 적어 잠깐의 감독으로 판단이 힘들 14.3%, 감독관의 자질 9.5%, 기타 3.2% 순으로 나타났다.

4. 1과제 얼굴관리 실기시험의 피부미용 관리 현장에서 활용도에 피부미용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53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과제 실기시험의 피부미용 관리 현장에서 활용도에 피부미용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팔, 다리, 제모, 립프를 이용한 관리는 실기시험이 피부미용 관리 현장에서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미용사들은 자격증 취득이 고객들에게 더 신뢰를 주었다고 인식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자격증 취득이 고객들에게 더 신뢰를 주었다고 인식하는 피부미용사가 76.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지 살펴본 결과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피부미용사가 59.5%로 나타났다. 재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실기교육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피부미용사가 6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교육 주기는 6개월에 1회가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피부미용사가 56.0%로 가장 많았으며 재교육의 필요성을 알수 있다.

5. 피부미용의 관리범위의 적당한 규정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피부미용의 관리범위가 전신까지 규정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피부미용사가 64.9%로 가장 많았다. 공중위생법의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 업무범위 규정에 대해 피부미용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공중위생법의 미용사(피부) 업무범위 규정이 부분 개정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피부미용사가 52.9%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미용기기의 법적 규정에 고주파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피부미용사가 11.8%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미용기기의 법적 규정에 고주파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피부미용사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공중위생법 행정처분기준 미용업의 업무에 대해 피부미용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공중위생법 행정처분기준 미용업의 업무에 대해 현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피부미용사가 44.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IV. 결론

본 연구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요건이(학력, 나이, 응시시간 등)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 이론공부를 1개월, 실기시험을 위해 실기공부를 3개월이 가장 많았다.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응시를 위해 합리적 법제화 시간이 300~600 교육이수기간 필요하다고 요구되며, 자격증 취득 후 재교육의 주기는 6개월 1회로 나타났으며 실기교육이나 이론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증 시험과목 중 추가되어야 할 과목을 분석한 결과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 필기과목 중 서비스 및 C/S교육 및 메디컬스킨케어, 실기과목 중 기기관리 및 아로마 테라피 등 시험 교육 과목이 추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의 피부미용관련 현장 실무 도움 정도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높게 나왔으며, 자격증 취득 후 급여가 인상되지 않았고 현재 업무의 급여나 복지혜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사료되어 진다.

현재 피부미용관리의 법적 규제현황은 피부미용 관리범위 및 피부미용기기와 의료기기가 산업의 현장성과 맞지 않게 비현실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공중위생법의 업무범위 및 행정처분기준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피부미용제도의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 자격응시요건강화, 피부미용업무범위의 비현실성, 피부미용기기 사용의 제한, 실기시험채점방식의 공정성과 감독위원들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 감독위원들의 양성과정의 신설 피부미용자격제도의 국제화 등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진다.

2012년 7월부터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 실기과목 중 1과제 중 팩 빛 마무리에서 모델링 마스크 및 석고 마스크가 추가 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현 업계가 이러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국가자격증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피부미용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게 구축하고 피부미용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제도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요구된다.

V. 참고 문헌

- 1) 이지현 「피부(미용)국가자격증 제도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뷰티산업연구, 제 4권 2호.2012.p5
- 2) 황순옥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피부미용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p3,11
- 3)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http://www.q-net.co.kr> 」
- 4) 류영옥 「미용사(피부) 국가기술 자격검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p1
- 5) 정부재 「New Esthetics」2012.1.p58,60